

장기 혈액투석환자에서 발생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한 양측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1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내과¹, 안과², 이비인후과³

박정경¹ · 강이화¹ · 유태현¹ · 신석균¹ · 김혜영² · 최경섭² · 한수진³

Bilateral Anterior Ischemic Optic Neuropathy with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in Long term Hemodialysis patient

Jeong-Kyung Park¹, Ea-Wha Kang¹, Tae-Hyeon Yoo¹, Sug-kyun Shin¹, Hae-Young Kim², Kyeong-Sub Choi², Soo-Jin Han³

National Health Insurance Ilsan Hospital Internal Medicine¹, Ophthalmology², Otolaryngology³

전방 허혈성 시신경염은 주로 후방 섬모체동맥의 혈류장애와 연관되어 있는데,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시신경병증은 매우 드물며, 요독물질에 의한 신경독성과 저혈압이나 빈혈,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 의한 혈관석회화, 동맥경화 등에 의한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소수의 증례보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 편측성이며, 청력소실을 동반하는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장기간 유지 혈액투석중인 말기신부전증 환자에게서 급성으로 발병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한 양측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58세 남자 환자로 1개월 전부터 급격히 진행한 어지러움증과 양안의 시력 저하, 청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환자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말기신부전증으로 개인의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최근 1개월간 투석 시 저혈압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투석시마다 calcitriol 정주에도 불구하고 부갑상선호르몬이 지속적으로 1000 pg/mL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다. 안과적으로는 5년 전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외에 특이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당시 혈압 120/80 mmHg, 맥박 80회/min, 호흡수 18회/min 체온 36.2°C이었으며 만성병색을 보였으나 그 외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다. 말초 혈액 검사 상 백혈구 4400/mm³, 혈색소 13.8 g/dL, 헤마토크릿 41.0%, 혈소판 203,000/mm³이었으며, 혈청 생화학 검사상 BUN/Cr 37/9.2 mg/dL, 총단백 7.5 g/dL, 알부민 3.7 g/dL, 요산 5.3 mg/dL, 총콜레스테롤 223 mg/dL, NA/K/Cl 138/4.9/97 mmol/L이었으며, CRP 0.59 mg/dL, β_2 -MG 2.78 mg/dL이었고 Ca/P 11.5/7.5 mg/dL, 부갑상선호르몬은 1873 pg/mL 로 높게 측정 되었다. 혈액투석적절도 (Kt/V)는 1.01이었다. 순음 청력 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였고, 전정기능검사에서 전정기능마비가 있어 특발성 전정와우신경병증이 의심되었다. 안와부 CT에서 양측 시신경집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안저검사상 양안에 심한 유두부종, 유두주위 출혈 소견 보였다.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양측성 뇌신경 마비로 뇌막을 침범하는 악성종양을 염두에 두고 뇌척수액 검사와 뇌 MRI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은 없었다. 장기간 혈액투석을 시행한 환자로 요독성 시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투석 중 혈압이 자주 떨어진 병력과 통증없이 빠르게 진행된 양측 시력소실과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해 혈관내 칼슘 침착으로 혈류저항이 증가되어 있을 가능성 등으로 미루어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이전 보고에서 수액공급, 빈혈교정등과 같은 대증요법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호전된 예가 있어 5일간 메칠프레드니손 1 g 정맥 주사후 경구 프레드니손 60 mg 투여를 2개월간 투약하고 주 4회 혈액여과법을 시행하였으나, 시력소실, 청력소실의 호전은 보이지 않았고 안과 추적 안저 촬영 결과 시신경 유두의 위축이 있는 상태로 향후 시력 회복의 가능성은 낮아 경과 관찰 중이다.